

광주시, 구직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인기'

토닥토닥 3센터, 日 40~50명 '복직' 2019년 개소 이후 6만6천여명 이용 면접용 정장·구두·넥타이 무료 대여 프로필 촬영 서비스...AI 모의면접도

올 하반기 취업 시즌과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등이 다가오면서 광주시가 구직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면접 정장 대여, 프로필 사진 촬영,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인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치평동에 마련된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전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를 구직청년들

이 하루 40~50명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개소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이용객은 6만6616명이다.

'토닥토닥 3센터'에서는 광주시가 청년(19~39세)들에게 △면접 정장 대여 △이력서·프로필 사진 촬영 △공간 대관 △온·오프라인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는 5년 간 1만 2000명에게 제공해 정장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일회성 면접으로 정장 구매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의 구직 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대형병원의 간

호사 채용 시즌에는 준비된 면접 정장이 동이 날 정도로 인기다.

이 서비스는 정장뿐만 아니라 구두, 넥타이, 벨트까지 1인당 연간 5회, 최대 3박 4일 간 대여할 수 있다.

'사진 촬영 서비스'도 구직청년들에게 매력적이다. 이력서 작성을 위한 사진은 전문작가가 현장에서 촬영하는 만큼 1:1 수정을 거쳐 증명사진을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취업용 포트폴리오에 사용하거나 개인의 전문성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프로필 촬영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이 사전에 경험하지 않으면 실전

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AI(인공지능) 모의 면접도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토닥토닥 3센터'는 접근성이 좋은 서구 치평동에 위치해 스테디룸, 회의실 등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다만,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휴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토닥토닥 3센터'에 직접 문의하거나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또는 개별 누리집에 방문 가입 후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광주시가 신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스테이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이지트(동구), 청춘발산공작소·청년센터플러스(서구), 청년와락(남구), 청춘이랑(북구), 청청플랫폼(광산구) 등 청년공간에서도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운숙청년정책과장은 "구직난에 처한 청년들에게 정장 대여 등 취업 지원 사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외국인 결핵 검진·예방 관리 강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방문자 대상 호남권질병센터 등 유관기관 협력

광주시에 호남권질병대응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외국인 결핵 예방 관리 강화에 나섰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75명(검진 19명·교육 56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행사와 교육은 광주시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광산구보건소, 대한결핵협회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했다.

결핵 검진 및 예방 교육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외국인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외국인 전체 결핵환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107명으로 전년(1072명) 대비 3.3%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6년 입국 전 사전 결핵검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날 오후 시작된 결핵검진(흉부 X선 촬영)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해 검진문진표를 사전에 배부·작성해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 차량에서 외국인 19명을 즉시 검진할 수 있었다. 또 기침·가래 등 유증상자와 검진 결과 우수결핵자(객담)검사를 시행했다. 검사에서 결핵으로 최종 진단된 외국인은 결핵 완치까지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복약관리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진에 이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외국인 56명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교육은 △결핵 증상 △결핵 검진 및 치료방법 △결핵 치료기간 △결핵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을 듣는 외국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동시통역을 지원했다.

노병하 기자



시민의 숲음길 2구간 개통

문인 광주 북구청장, 전진숙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이 5일 북구 명상의집 광장에서 '한새봉과 삼각산을 잇는 시민의 숲음길 2구간 개통식'을 갖고 숲음길을 걷고 있다.

김영배 기자

전남도, 미래 성장동력 '세라믹산업' 육성

후방소재산업 육성 용역 착수 산학연 등 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라믹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109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세라믹은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로봇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를 선도할 핵심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분석,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세라믹 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육성전략을 정하고 구체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남의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후방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기획·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종합계획 수립 추진 방향 및 내용, 산업·정책 동향, 산학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산·학·연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세라믹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곽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세라믹산업이 전남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원료 소재 다변화를 위해 정부에 정책지원 건의와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여름 휴가철 '가고 싶은 섬' 추천

여수 손죽도·고흥 연흥도 등

전남도가 여름휴가 계획으로 설레는 직장인들을 위해 풍성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수 손죽도, 고흥 연흥도, 진도 관매도, 신안 기점소약도 등 '전남 가고 싶은 섬'을 방문을 추천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현지 섬 주민을 섬코디네이터로 양성해 가고 싶은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여행을 선물하고 있다.

여수 손죽도의 박근희 섬코디네이터는 "손죽도는 바다 위 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집집마다 특색있게 정원을 가꾸고 있다. 여름 향기 가득한 손죽도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다면 숲은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것"이라고 추천했다.

고흥 연흥도의 최원숙 섬코디네이터는 "탐방로가 숲과 바다로 이어져 있어 힐링하기 딱 좋다"고 소개했다.

진도 관매도의 함한중 섬코디네이터는 "해송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넓고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고 자랑했다.

신안 기점소약도의 김철수 섬코디네이터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고 숲에서 쉬며 12사도 건축물을 둘러보면, 한여름 더위도 잊고 재미도 쏠쏠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사회서비스원, '2025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9월30일까지 '2025년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5일 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이번 수요 조사는 광주시민, 학계, 복지현장, 공무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복지정책육구를 파악해 지역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정책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구과제 제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광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20240310@gj.pa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연구과제 중 우수한 연구과제는 소정의 사은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를 통해 제안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사회서비스원 2025년도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전화(062-607-5255)로 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광주공항서 '사회적경제마켓' 연다

광주시는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해 오는 2025년 1월21일까지 광주공항 1층 특설 판매대에서 '사회적경제마켓'을 운영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경제마켓'은 광주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광주사회적경제기업과 직접 생산한 제품을 홍보·판매해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

광주 코로나19 검출 증가세... "예방수칙 준수"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생활하수 내 병원체 모니터링과 환자감시데이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동시 상승하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5일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감염병 환자 중심의 감시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생활하수 내 병원체 모니

터링을 매주 실시하고 있다. 지역 생활하수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1하수, 2하수, 효천)의 하수를 매주 채수,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감염병 병원체들의 양 변화를 감시한다.

최근 생활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7월 2주차부터 증

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또는 회사 등이다.

판매 품목으로는 수공예품, 나무 도마, 액세서리, 소형 원료 가구, 수제 먹거리(오란다, 누룽지, 맥주) 등으로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우수 제품을 판매한다.

노병하 기자

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월 1주차 코로나19 바이러스 평균농도는 300copies/μl로, 7월 2주차 50copies/μl보다 6배가 늘었다.

또 광주지역 협력 의료기관 9개소와 운영 중인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 감시'에서도 코로나19 검출률이 8월 1주차 29.7%로, 7월 2주차 6.8%보다 4배 상승했다. 이는 하수 감시 결과와도 유사하다.

노병하 기자